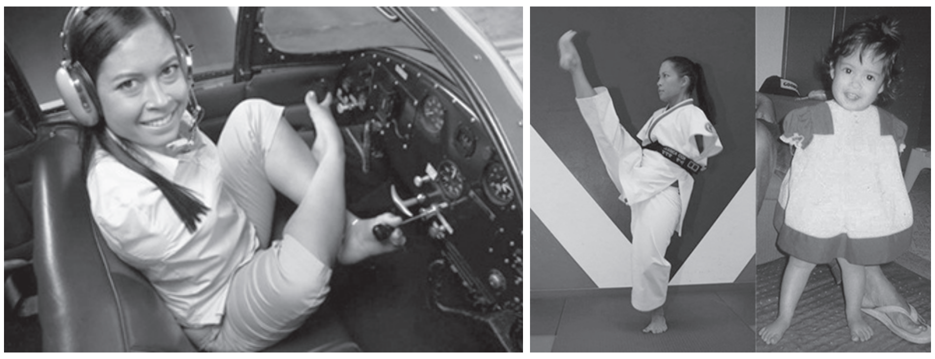
세계 최초 두 팔 없는 비행기 조종사



두 팔이 없이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비행기 조종사 면허까지 취득한 여성이 화제이다.

지난 17일 CNN에 따르면 애리조나 출신의 제시카 콕스(36·사진)는 선천적으로 두 팔 없이 태어난 장애인이다. 하지만 콕스는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냈다.

콕스는 "내 어린시절은 평범했다. 공립학교를 다녔고 방과 후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면서 "두 팔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관심도 받았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는 것에 분개했다." 고 밝혔다.

신체적 장애를 넘어선 콕스는 놀랍게도 태권도 공인 3단,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 그리고 지금은 동기부여 연설가로 한국을 포함해 20여개 국을 여행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애리조나 대학을 졸업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다. 콕스는 "두 팔이 없는 나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비행 교관과 적절한 비행기를 찾아야했다." 면서 "내가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이 들 때마다 조종할 비행기 사진을 쳐다봤다." 고 말했다.

이렇게 힘겨운 도전에 나선 그녀는 지난 2008년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소형 항공기인 에르쿠페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이 항공기 조종 면허를 취득한 것은 콕스가 세계 최초이다.

콕스가 이렇게 큰 장애를 넘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족의 힘이 자리잡고 있다. 콕스는 "가족은 내가 밖으로 나가서 도전해보고 스스로 해보도록 격려해 줬다." 면서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한계를 느낀 적은 없다." 고 밝혔다. 이어 "나의 도전이 장애를 가진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다." 고 강조했다.

해발 4000m서 열린 프로축구 심판 경기 중 사망

고산지대에서 열린 축구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이 그라운드에 쓰러져 사망했다. 볼리비아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심판 빅토르 우고 우르타도(32)는 지난 19일 '올웨이즈 레디' 와 '오리엔테 페트롤레로' 와의 경기에 주심으로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건 전반 종료를 앞두고 있던 49분쯤. 우르타도는 갑자기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다. 현장 의료팀은 그를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심장마비로 추정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확인되진 않았다." 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산지대에서 무리하게 달린 게 사망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기가 열린 엘알토 축구장은 해발 4,095m에 위치해 있다.

볼리비아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축구강국의 선수들도 경기를 꺼리는 곳이다. 아르헨티나의 한 프로선수는 "볼리비아에서 경기를 하면 공이 튀는 것도 다르다." 면서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곤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볼리비아 축구협회는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예단할 수 없다." 며 이런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

도둑들 집단 린치한 멕시코 상인들

멕시코 치아파스의 타파출라에 있는 한 시장의 상인들이 최근 도둑질을 하다 들킨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분21초 분량의 영상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2인조 여자 도둑들의 모습과 함께 시작된다. 도둑 중 한 명은 이미 상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고, 상인들은 손에 가위를 들고 또 다른 여자 도둑에게 달려든다.

상인들은 도둑의 상의와 바지를 가위로 잘라 벗겨낸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상인들은 그런 도둑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을 서슴지 않는다. 잔뜩 겁에 질린 도둑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다.

시장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알몸이 된 도둑들은 주요 신체부위를 가리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잔뜩 흥분한 상인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속옷만 남겨두고 도둑들의 옷을 벗겨낸 상인들은 이번엔 가위로 도둑들의 머리털을 마구 자르기 시작한다. 도둑들은 묵묵히 당하고만 있다.

영상은 만신창이가 되어 현장을 떠나는 도둑들을 보여주면서 끝난다. 그런 도둑들에게 상인들은 여전히 욕을 퍼붓는다.

상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도둑질을 한 상습범들" 이라며 "경찰이 범죄 예방에 손을 쓰지 않고 있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며 그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멕시코에선 범죄자들에 대한 린치가 관습이 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해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푸에블라에선 50대 남자와 20대 조카가 주민들에게 화형을 당했다. 주민들이 두 사람을 유괴범으로 오해하고 벌인 일이다. 경찰은 뒤늦게 "두 사람은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셨을 뿐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고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은 후였다.